

#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 가난



▲ 서울의 한 거리에서 한 노인이 폐지 등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서울경제'는 한국 통계청이 전날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를 인용해 2019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주요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의 65%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13.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감소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17.2%로 8.1%포인트 증가했다.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 주된 방법은 근로·사업소득(48.3%)이었으며, 연금·퇴직급여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10년 전보다 연금·퇴직급여는 4.7%포인트 증가했고, 근로·사업 소득은 2.5%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과 예금·적금은 소폭 감소했다.

65세 이상 43.3%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59.1%였으며,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 29.0%, 앞으로 준비할 계획 8.3%로 나타났다.

#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지난 28일부터 한국에서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됐다.

만 나이는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 더 빼야 한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5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51세가 된다.

한국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으로 연금 수급연령 등 혜택을 둘러싼 민원 갈등, 사적 계약에서의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해외업무에서 초래하는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1)

<b>A씨</b> 1971년 6월 1일생	<b>B씨</b> 1971년 8월 1일생
	
2023-1971=52세	2023-1971-1=51세

※ 2023년 6월 30일 기준

▲ 만 나이 계산 방법, 그래픽=타운뉴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 나이 적용이 맞다고 보고, 병역 의무 역시 1년 단위로 징병검사를 통보하는데 생일 나이를 따지긴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취학연령이나 병역법의 경우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만 나이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관련 연구 용역,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무료

이제는 서울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와도 10분 이내에만 다시 들어가면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지하철역 하차 후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는 경우 환승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또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 시(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그간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 한 시민이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하고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구간(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협의 지속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겪고 있던 불편을 해소하는 서울시의 창의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쟁겨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